

차례

봉오동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02
· 축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03
· 축사 (이종찬 광복회 회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04
· 축사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06
· 기념식 참가 후기 (홍수지 역사학과 후, 활동명 '한국사 여생도')	07

2024 기획 특집 -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1)

· 홍범도 장군 홍상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08
--	----

2023/2024 특별기획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5)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12
---	----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15

시민기고

· 만주 연해주 독립전쟁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김형규 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본부장)	16
---	----

회원 기고

· 소설 “김가네” 출판 기념회 참석 후기 (정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18
--	----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20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25

회원동정

28



봉오동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2023년 8월,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의 흉상 철거 시도를 통하여 우리 군의 역사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역사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켜내어 흉상 철거나 재배치 이야기는 유야무야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완전한 종식이라 볼 수 없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흉상 철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독립군의 역사 지우기 시도가 또 다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반역사적인 행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2023년 국방부와 육사, 그리고 국가보훈부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 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24년 6월 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을 주최하였다. 우원식 이사장의 국회의원장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만이었다. 5년 주기 사이 기념식은 기념사업회 내부행사로 작은 규모로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범도합, 독립운동 관련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께 나누었다.

기념식 끝에는 봉오동전투를 브레이킹댄스로 표현한 '조선 호랑이'와 합창단 '그날'의 기념 공연이 봉오동전투의 승리의 감격으로 가슴을 울렸다.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104년 전 오늘, 우리 독립군은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독립전쟁에서 일본 정규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 3.1운동과 함께 독립군에 투신한 청년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주와 간도 곳곳에 창설된 독립군 부대들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의 독립전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전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불리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의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한번 일본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운동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을 키울 희망이 되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같은 독립전쟁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우리 국군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애국심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 정신의 근간이자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군의 전사(前史)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려 시도합니다. 국군의 간성을 기르는 육군사관학교 앞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끝끝내 철거하려 합니다.

정부당국과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항일 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스러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서 봉환하고, 육사에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은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부가 진정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봉오동 전투라는 위대한 독립전쟁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흉상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변함없이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모시며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위기 극복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기억을 더욱 고취 시키고, 봉오동 전투와 같은 승리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기억합시다.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함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의 삶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저의 외조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실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이십니다. 제 가슴속에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려준 분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의 걸기를 저 역시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우리 독립의 역사를 지켜내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은 항일독립전쟁 역사에 빛나는 전과로 영원히 기억될 봉오동 전투 전승 104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가슴 속에 품은 애국의 일념으로 위대한 승전을 이끌어내신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군 용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기념식을 준비해주신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로 식민지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 가던 1920년대 초였지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이은 또 하나의 반전의 기운이 간도 지역에서 싹트고 있었습니

다. 북방의 차디찬 혹한으로 불모의 지역으로 여겨지던 간도에서 새롭게 싹튼 독립의 움직임은 바로 무장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는 독립군은 대대적인 토벌전을 준비하는 일제에 맞서 서전이었던 삼둔자의 승전을 계기로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1920년 6월 7일, 독립군은 섬멸전을 펼친 끝에 일본군을 속절없이 패퇴시켰습니다.

병력과 장비 등 객관적 조건의 열세 속에서도 일본 정규군을 완파한 봉오동 전투는 대규모 독립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봉오동 계곡에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은 만주지역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고, 더욱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루어 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의 승전은 독립군 조직의 확대와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이후의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에 신음하던 이천만 겨레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어, 수많은 대한의 애국청년들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투신토록 하는 기록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이렇게 심기일전한 우리민족은 갖은 시련에도 불굴의 의지로 대일항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104년 전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군 용사님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애국심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되살아나 국가를 지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현대사를 수놓은 숭고한 애국정신은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승전과 그를 일궈낸 홍범도 장군님의 높은 이름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대한민국의 후세들에게 영원히 계승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만물의 무성함이 더해가는 6월의 기운이 직장가 가정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종찬
광복회 회장/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명예 이사장



오늘 우리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선열들의 위대한 승리인 봉오동 전투 104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사 내 홍 장군 흉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독립영웅을 막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계속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맞이하여 지난 1년,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홍 장군에 대한 일부 세력들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 차마 홍 장군께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홍 장군을 모함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그 분이 기여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승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지우고, 친일 매국을 미화하는 한편, 민족정기와 항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가려는 저들의 저의 앞에 홍 장군을 반드시 지켜 내려는 우리의 굳건한 결의를 다져 나가야 함을 절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민족 50년간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봉오동전투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참으로 큼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뚜렷한 목적과 지향해야 할 궁극적 수단을 제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통해 독립의 가능성과 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라는 거대한 산맥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조국광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은 청산리전투 대승이라는 독립운동 사상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리는 서막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신흥 강자였던 일제와 싸운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열강들은 모두 우리보다는 일본을 지지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모두 치른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우리 독립군과 싸운 전투 중에 패배를 인정한 전투가 바로 이 두 전투인데 이 싸움에 기여한 이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홍 장군은 우리 국민의 영웅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홍 장군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지운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모두 없애자는 것인데, 정신 온전히 박힌 후손들이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에 더해 최근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를 꽃고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에 참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못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우리 정부기관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없다는 논리를 대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를 오히려 돕는 일이 우리 국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제하에서 권력에 아부하여 삶을 연명해 나갔던 악질 친일파들이나 했던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제를 미화하고 친일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광복 80년에 가까운 이 시기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선열들의

후손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격랑의 현대사를 겪어오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탓이며, 이런 저들의 의도를 뻔히 아는데, 독립운동정신 선양을 제1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복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셨던 선열들의 이름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음해세력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홍장군의 역사를 지우려는 진짜 의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위대한 선열들의 빛나는 독립운동을 지우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선열들의 헌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감사합니다.

2024년(대한민국 106년) 6월 7일

축사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오늘은 6월 7일,
봉오동 전투 대승의 첫 총성이 울린 날입니다.

독립군 대일항전 이래 최초의 승리, 그후로 104년이 지났습니다.

홍범도장군의 독립군은 열악한 무기와 장비로 일본군 120명 사살, 300명 부상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봉오동전투는 대한민국 독립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104주년 기념 행사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오신 우원식 의원님께서 국회의장에 선출되신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식 참가후기



홍수지 역사학과 후, 활동명 '한국사 여생도'

2024년 6월, 독립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1920년 6월의 독립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역사와 독립군들을 기억해 봅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게 글을 읽으셨던 분들도, 두 손에 호미를 쥐고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도, 사냥을 하러 다니신 분들도, 후손들의 교육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상(日常)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10년 경술국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셨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호미와 붓을 쥐시던 손 대신에 총과 칼을 쥐고 일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에는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음식 감자의 명칭을 가지고 각 지방의 방언으로 설명하는 장면에서, 황해철(유해진 분)은 “독립군 수는 셀 수 없어. 웬지 알아? 어제 농사지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전장이 될 봉오동으로 독립군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최초의 대규모 독립전쟁인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독립군들은 모두 용감하고 맹렬히 일제에게 독립의 의지를 실어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모든 분들께서는 크게 고무되었고 이 전투를 시작으로 청산리대첩을 넘어 수많은 독립전쟁을 독립군과 광복군들이 연이어 치르게 됨으로써 전 세계에 독립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선조들께서 독립된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독립의 역사를 후대에게 잘 계승하고 전승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승기념식에서 축사를 들었을 때에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바름’입니다. 독립영웅이신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군, 광복군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의 우리도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결국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현재와 미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립전쟁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독립전쟁을 하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독립전쟁과 독립운동의 역사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지우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저는 올바른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승기념일인 오늘 6월 7일 하루만큼이라도 감사함을 지니는 것, 오늘이 봉오동전투가 있던 날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봉오동전투와 이를 이끄셨던 홍범도 장군님을 104년이 지난 오늘 기억합니다. 또한 기억함으로써 감사함을 지닙니다. 독립된 하늘에서, 독립된 땅을 주신 104년 전의 모든 독립운동가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기획 특집 -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1)

2024년에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을 짚어보는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홍범도 장군 홍상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홍상 문제가 지난해 여름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육사와 육군이 홍 장군을 비롯해 5인 독립전쟁 지도자 홍상을 느닷없이 옮기겠다고 해서 생긴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제는 뭘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홍 장군 홍상 이전 논란과 한국 군의 역사적 뿌리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신흥무관학교를 육사 기원으로 기리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육사가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을 높이 평가하는 학술 행사를 하면서 홍 장군과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독립전쟁 지도자 다섯 분 홍상을 교내에 세웠다.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1911년 만주 서간도 지역에 세워, 1920년까지 10년 가까이 운영하였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원병상 회고록에 의하면 3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항일독립투사를 양성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가 2023년에 발간한 <신흥무관학교 교관 원병상 회고록>을 살펴보면, 이 학교는 3개월, 6개월 속성반, 4년제 과정 등을 배합해 운영했다. 독지가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국권을 잃고 독립운동을

하는 터에 학교 재정이 넉넉할 리 없었다. 학교는 낮에 들판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과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운영했다.

회고록 주인공 원병상은 1913년 4년제 본과 3기생으로 입교해 정규 과정을 했다. 졸업 뒤 교칙에 따라 출신 마을 한인 소학교 교사가 되어 낮에는 어린이를 가르치고 밤에는 청년을 모아 군사훈련을 지도했다. 1919년 모교 교관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인원은 청산리 전투를 비롯한 1920~1930년대 독립전쟁의 원동력이 됐다. 일제 강점기에 장교와 부사관에 해당하는 독립투사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권을 되찾고자한 신흥무관학교와 다섯 분의 독립영웅의 정신을 계승함은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의 설립정신의 기원으로 삼아 높이 기리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지난 정부 때이니까 어떤 사람은 청와대가 지시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육사 교장은 생도 교육에 필요하다고 육사 차원에서 논의해 자발적으로 했다고 설명한다. 아마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싶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을 필자가 얼마 전 직접 만나서

취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나 장관은 일절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전 추진도 존치 확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윤석열 정부로 들어왔다. 지난해 8월 육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홍범도 장군 홍상은 육사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른 4인 홍상은 육사 내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정권이 바뀌니까 육사가 분위기를 헤아려 일을 꾸미지 않았겠는가.

다들 알다시피 이 문제가 큰 정치 쟁점이 됐다.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홍상 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여론 흐름을 보면 그 무렵부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왜 정부가 앞장서서 이념논쟁을 벌이는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4월 총선을 치렀는데 여당이 패배하고 말았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다. 장관이 발을 빼버린 셈이다.

올해 5월 2일 이 문제를 추진했던 육사 교장이 전역하고 다른 사람이 교장으로 부임했다. 새 육사 교장이 어떻게 할까? 장관은 육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새 육사 교장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에 손을 댈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홍상 이전을 추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고 밝히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두고 보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흠결 없음 인정하는 인물, 군대도 존중해야

홍범도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소련 공산당, 중국 국민당,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 세력과 손을 잡았다. 누군가와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다.

홍 장군은 1943년에 세상을 떠났다.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전략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노선을 택했다. 오늘날 우리 정부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있다. 다만 그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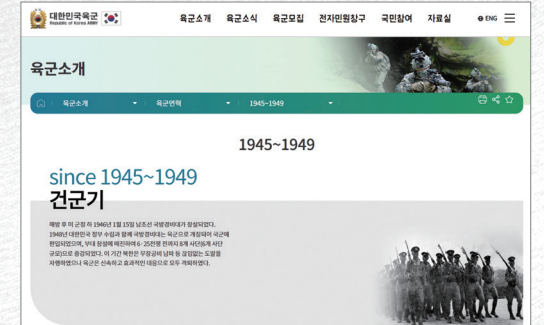
서 북한 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 관여한 인물은 제외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 장군의 공적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천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적을 높이 기리는 인물이라면 군대도 국가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 군의 특수성을 아무 데서나 내세우면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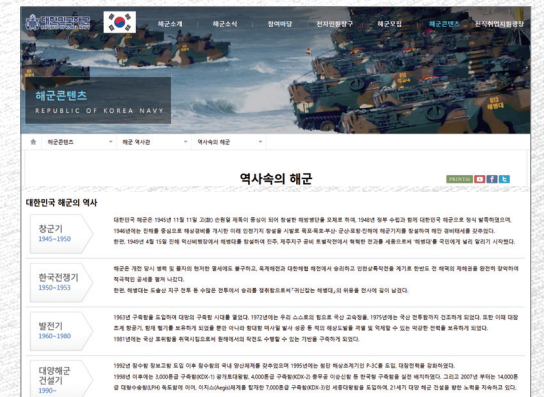
육사와 육군, 1946년 미군정 시기를 기원으로 삼다니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입학연도	학위/교과	생도/생활	커뮤니티	온라인서비스	학교/방문안내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https://www.kma.ac.kr:461/kma/3630/subview.do>
육사 홈페이지 조직 기원 화면 캡처



▲ <https://www.army.mil.kr/army/306/subview.do>
육군본부 홈페이지 조직 기원 화면 캡처



▲ <https://www.army.mil.kr/army/306/subview.do>
해군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https://rokaf.airforce.mil.kr/airforce/412/subview.do>
공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상 시비가 부당함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육군과 육사가 역사를 좀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육사 교장, 때로 국방부 장관은 홍 장군 홍상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육사는 독립운동가 양성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무슨 말인가? 육사와 육군 정체성은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 인사들의 국회 답변을 보면, 육사와 육군은 1946년 미 군정이 설치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와 국방경비대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육사와 육군 홈페이지를 봐도 조직 기원을 같은 내용으로 제시해놓고 있다.

국방경비대 **부** 국방경비사관학교를 거쳐서 현대 육군으로 발전해갔으니 그 기관을 육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이전 시기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육사와 육군이 조직의 공식 기원으로 명시하지 않는 점이다.

같은 한국군 안에서도 해군과 공군은 다르다. 해군은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와 그 아들 손원일 제독이 벌인 일제하 독립운동을 조직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공군은 일제 강점기에 항공 선각자들이 미국 중국 여러 곳에서 벌인 항공 독립운동을 조직의 기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 육군과 육사가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외면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주요 구성원이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 보니,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 지도자 홍상을 육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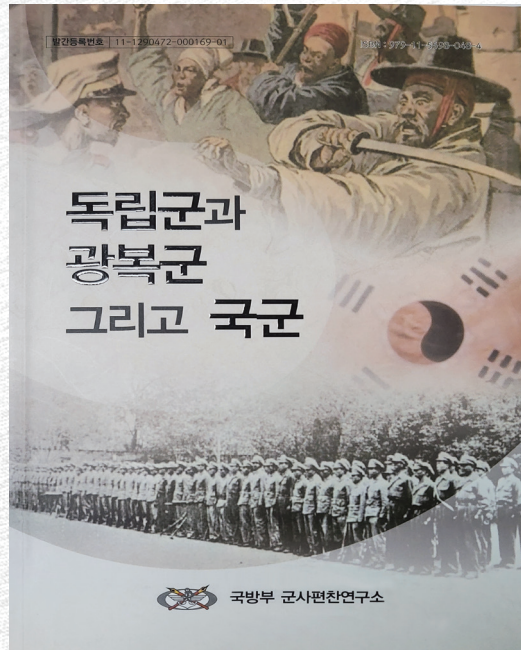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조직 상층부를 장악한 역사

배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초창기 현대 육군을 만들 때 대거 들어가서 상층부를 차지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들이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군과 광복군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하고 축소하려 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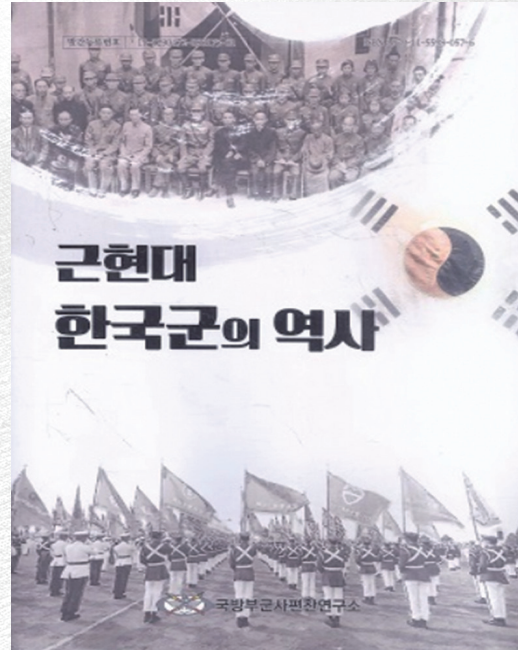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해 한국전쟁 때 활약한 김홍일 장군이 있다. 중국군에서 사단장을 지내 정규군부대를 지휘해 본 사람인데, 북한군이 마구 밀고 내려올 때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서 무너진 국군 부대를 수습해 한강방어선에서 적의 공격을 1주일이나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다. 그 덕분에 스미스 기동부대를 비롯한 미군 선발대가 한국 전선에 배치될 수 있었다.

이런 인물조차 결국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에게 밀려서 오래 가지 않아 군복을 벗게 된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조직 상층부를 차지한 데서 그치지 않고 군대 문화를 독립운동 정신과 거리가 있는 쪽으로 조성한 게 더욱 문제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1950년대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에 응시했을 때 경험을 회고록에 털어놓았다. 광복군 출신 인사한테 추천장을 받아서 제출했더니 면접관이 “소위 독립운동 집안이라는 거냐”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과 육사는 지금부터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 좋겠다. 과거에 일본군, 만주군 출신 인사들이 조직 상층부를 차지해서 독립전쟁을 외면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세대도 모두 세상을 뜨지 않았다.

책을 소개하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라는 두 권인데,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현대 국군의 뿌리로 잘 연결시켜 정리했다. 아주 좋은 책이다.

이 책을 보면 미 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조차 현대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히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 미 군정 시기 국방부 장관 격인 통위부장을 인선할 때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을 하던 이범석 장군을 1순위로 섭외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범석 장군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초대 국방부 차관에는 중국 공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한 최용덕 장군을 임명했다.

헌법과 법률로 봐도 그렇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다고 했다. 독립군과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다. 헌법과 법률로 봐도 독립군과 광복군은 육군과 육사의 뿌리이며 전신이고 선배가 맞다. 육군과 육사가

자기 생각대로 역사를 단절하고 특정한 역사관을 내세우면 곤란하다. 해군과 공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헌법이 정리한 국가적 합의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외국도 시민혁명과 독립전쟁 전통 존중

외국과 비교해볼까?

프랑스에서는 1789년 7월14일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왕을 끌어내렸다.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제를 만들었다. 프랑스군은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 그날을 국군의 날로 삼아 시가행진을 벌인다.

미국에서는 영국과 맞서 싸운 독립전쟁을 중시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원들은 군복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회색 안감이 달린 옷을 뒤집어 입고 싸웠다. 독립전쟁을 존중하는 전통에 따라 미군 육군사관학교는 회색 조끼를 입고 있다. 한국 육사도 미 육사를 본떠서 회색 조끼를 입고 있다. 육사 지휘부나 생도들이 제복의 유래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역사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 시민혁명이며 독립전쟁이었다. 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못지 않은 전통을 우리도 갖고 있다. 빛나는 전통을 사장시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군대가 빛나는 독립전쟁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장병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끝>



▲ 이범석과 장준하를 비롯한 광복군 국내 정진대원들이 1945년 8월16일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과 함께 미군 수송기 편으로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내려 작전을 시도했다. 사진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필자 소개

박창식 | 언론인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광운대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했다.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내고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으로 일했다. 국방 커뮤니케이션, 말하기와 글쓰기, 언론 홍보와 위기관리 등을 주제로 글을 쓰고 강의하고 있다.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5)



반 병 룰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대한의용군 사령관

청산리전투이후 황구령촌(黃口嶺村)에서 김좌진의 군정서 부대와 결합하여 재기를 모색하던 홍범도는 김좌진과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안도현의 삼인방(三人坊)으로 이동하여 대沙河(大沙河)에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홍범도 부대는 약 2백 명이었다. 일본측 첩보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족회(서로군정서)의 교성대는 안도현 삼인방에 본부를 두고 무관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다.

일제가 중국 관현을 데리고 '수색작전'을 펴서 안동식, 방기전 등 한족회 간부를 끌고 가 살해할 때 한족회와 신흥학교 관계자들이 대부분 피신하였는데, 이때 이청천이 이끄는 교성대도 안도현으로 이동해 온 것이다. 서로군정서 교성대의 안도현으로의 이동과 주둔은 서로군정서가 사전에 준비한 것이었다. 즉, 서로군정서의 독판 이상룡의 행장(行狀)에 의하면, 이상룡은 1919년 가을 성준용과 강남호를 파견하여 병영지를 살펴 고르게 하고, 이청천으로 하여금 '의용대'를 이끌고 먼저 들어가서 주둔케 하였다고

한다. 이청천이 이끌고 안도현으로 들어간 서로군정서 교성대는 '의용대'의 다른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측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1920년 8월 말 당시 서로군정서 간부인 사령관 이청천과 참모장 김동삼이 안도현 삼인방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 곳에 서로군정서의 사실상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안도현 삼인방에는 홍범도부대, 서로군정서 교성대 외에 광복단 군대가 이동해 와 있었다. 청산리대첩 당시 삼도구 방면에 있었던 40여 명 병력의 광복단은 송국인이 일본군에 귀순하고, 제8중대장인 조동식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들 3부대가 연합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하였다. 1920년 11월 중순경이라고 추정된다. 청산리대첩에서 부상당한 홍범도 부대원들을 제대시키고, 그 무기들을 무기 없던 교성대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통합군대를 창설한 것이다. 3개 부대의 연합으로 조직된 대한의용군의 병력은 약 4백여 명으로 사령부와 3개 중대를 편성하였는데, 사령부는 총사령 홍범도, 부사령 이청천, 부관 강남일, 부원

전대복, 박운봉, 중대장 최상만, 김창환, 조동식이었다. 이상룡의 「행장」에서도 이 통합 사실을 “이청천이 안도현에 이르러 광복군 홍범도 및 이동주 등과 서로 결합하여 성세(聲勢)를 이루었다”고 적어 놓았다.

일제의 보복적 만행으로서의 경신참변

1920년 한국독립군이 북간도에서 전개한 항일무장 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이른바 '간도참변' '경신참변' 등으로 불리는 북간도 침공 일본군이 저지른 대학살이다. 일제는 식민지 체제에 크나큰 위협을 주고 있는 독립군을 근절하고 이들 독립군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서북간도의 한인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와 학살에 나섰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고육지책으로 만주 마적을 동원하여 일본영사관을 공격케 한 훈춘사건(10월 2일)을 조작하여 '출병'의 명분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조선군, 관동군, 시베리아 침략군 등을 망라한 2만 5천 명에 달하는 일본 침략군이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포위하듯이 서북간도 각지를 점령하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서 “일병(日兵)이 로씨야에서 철병하여 나오는 놈이 수만 명이 북간도에 폭 덮었다”라고 회상했다.

일본군의 간도침공은 중국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였으면 침략행위였다. 이후 10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2개월 동안 일본군은 서북간도를 횡행하며 무고한 평화적 농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일본 침략군은 3천 5백 명에 달하는 한인 농민들을 학살하였으며, 민가, 학교,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성인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심지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무도불법의 일본군은 무고한 농민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총과 도검으로 쏘고 찔러 죽였다.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 아기를 잉태한 산모 등을 가리지 않고 일본군은 극악무도한 학살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앞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4월 4~5일 동포 수십명이 학살당한 연해주에서의 4월참변은 일본 침략군에 의한 학살의 서곡이었으며, 청산리전투를 전후로 하여 10~11월 2개월에 걸친 서북간도에서의 경신참변은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의 절정이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가 간도에서 참살당한 동포들을 위한 추도식에서, “수만의 야만적 병사들이 간북(間北)과 간서(間西)에 침입하여 우리의 선량한 동포를 박멸코저

할새 혹은 살아있는 채로 묻고 혹은 불로 태우고 가마솥으로 끓이며, 혹은 강에 던지며, 코를 꿰며, 옆구리를 뚫으며, 배를 가르고, 머리를 베며, 눈을 찌르며, 살갓을 벗기며, 허리를 베고, 손발을 자르며, 총과 칼로 쏘고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포박해서 죽이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죽이니...” “세계 고금에 이와 같은 극히 참혹한 혈사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잔학한 야만 종족이 있는가”고 개탄하였다.(임시정부 주최 순국제열 추도회. (1920년 12월 10일))

1920년 북간도 항일무장투쟁과 홍범도의 위상

북간도 지역 독립군 사이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연합의 중심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국민회와 북로군정서는 종교적, 지역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었다. 두 단체는 북간도지역 한인사회를 장악하고 통일된 독립군의 주도권을 고집한 탓에 끝내 연합할 수 없었다. 봉오동전투를 수행한 국민회, 군무도독부, 대한독립군의 삼단연합은 북간도의 일부 독립군 단체들의 부분적 연합에 불과했고 그나마 3개월 정도 유지된 채 다시 분열하였다.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북로군정서 군대와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독립군 부대들이 각자의 형편대로 일본군 대병력의 포위, 토벌망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 불과했다.

북간도에서 홍범도가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을 그가 단독으로, 또는 연합으로 활동했던 군대의 명칭과 그의 직함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한독립군 대장: 러시아 추풍 당어재골에서 발진하여 북간도로 들어갈 때(1919.10.1.)
- 북로정일제1군사령부 사령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대한국민회와의 제1차 삼단연(1920.5.19.)). 봉오동전투(6.7)
- 대한독립군대장: 제1차 삼단연합 붕괴후 단독으로. 청산리전투(1920년 10월 하순)
- 대한의용군사령관(안도현 삼인방에서 이청천. 김승빈의 서로군정서 교성대와 조동식의 광복단과 연합(1920년 11월 중순))
- 대한통의부(대한독립군) 부총재(대한의용군과 서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연합. 제2차 삼단연합(1921년 1월))

홍범도는 1928년경 작성한 「이력서」에서 연해주로부터 북간도로 들어가서 수행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 자신의 항일무장투쟁을 압축적으로 기록하여 놓았다.

“1919년 9월에는 수이푼 구역에서 이전 내 군대 군인이던 동지 150명을 일본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모집하였다. 쏘베트 지대에서 떠나서 북만주 지대로 나가는 중로에서 흰파(백파)와 홍의적들과 싸우면서 앵덕이(쏘베트영토) 지방에서 북만주에 당도하니, 우리 부대는 1,500명으로 장성되었다. 1920년에는 봉오골, 노투거우, 봉밀거우, 청산리, 우대영창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1921년 정월에 우리보담 백곱이 더 되는 왜병들을 당할 수 없고 탄환 기사가 부족하여서 만주 지대에서 떠나서 원동 이만으로 700명 되는 군력을 거느리고 왔다.”

봉오동과 청산리로 대표되는 1920년의 항일무장 투쟁은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 단체들이 연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병력을 앞세운 일본군과 중국군의 개입과 탄압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독립운동진영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다.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 임시 정부는 이용, 안정근, 왕삼덕 등 특사를 파견하여 연합을 추진했지만, 지도부의 분열과 대립으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충분한 물질 지원을 하지 못했다.

독립군 지도자들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어 연합 하자”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들 독립군 지도자들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심과 주도권 행사를 중시했다는 비판이 결코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이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한말의병이래 독립군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이 연합을 몸소 실천했던 빈농 출신의 독립군대장 홍범도가 아닐까 한다.

(다음 회에 계속)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기념하여 기념사업회는 산포수 출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대한사격연맹과 함께 같은 해 10월 창원에서 제1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전남 나주에서 광주시 후원으로 제2회 대회를, 강원도 춘천에서 춘천시 후원으로 제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3회 대회까지는 매해 우수 선수들을 초청하여 실력을 겨루는 이벤트성 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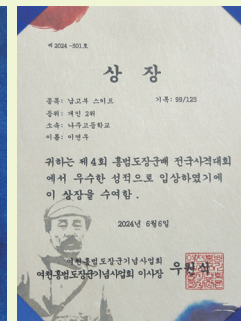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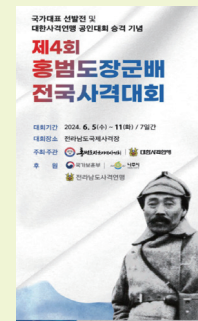
3번의 대회를 치르면서 기념사업회의 진정성과 대회 개최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어 제4회 대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전을 겸하는 대한사격연맹 공인대회로 격상되었다. 이로써,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는 봉황기, 경호처장기, 경찰청장기, 사격연맹회장기와 함께 사격 선수들이 세계 최고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관문이 되었다.

올해 제4회 대회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국가보훈부, 나주시,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나주에 있는 전라남도국제사격장에서 열렸다. 사격 전 종목(공기총, 화약총, 산탄총)에 연인원 전국 378개팀에서 2,64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한국 신기록 3개 등 대회 내용도 풍성했다.

▶ 한국신기록 수립

- 남일반 스키트 단체전 1위 충남체육회 364점(종전 362점) / 만점 375점
- 여일반 50M소총 복사 단체전 1위 청주시청 1,870.2점(종전 1,867.7점) / 만점 1,962.0점
- 여일반 50M소총 복사 단체전 2위 국군체육부대 1,868.3점(종전 1,867.7점) / 만점 1,962.0점

제5회 대회부터는 장애인부 대회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홍범도 장군의 독립 전쟁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한다.



시민기고

만주 연해주 독립전쟁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김형규 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본부장

만주벌판을 본다. 만주땅이 ‘일망무제’라는 단어의 실체를 보여주는 듯 이렇게 광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일 줄은 몰랐다. 백석 시인이 노래했던 그 북방의 광야에서 드넓은 땅을 경영했던 부여와 고구려 발해가 웅장하게 휘달리던 그 땅을 바라본다. 인천공항을 떠나 서해바다와 요동반도를 돌아 우리 일행의 답사 시작점인 만주 북간도의 한 곳 길림성 연길에 들어서니 조국독립의 일념으로 매진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신산고초가 느껴지는 듯하다.

나는 “홍범도와 함께 걷다”라는 모토로 만주와 연해주 등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답사하며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답사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 연구소 주관으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모두 32명이었다. 참가하신 분 모두 대학이나 학교, 사회 각 기관의 중요한 위치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으로 신주백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식견을 보여주셔서 더욱 뜻깊은 답사가 되었다.

금번 무겁고 설레는 답사에 참가한 계기는 백부님 생각에서였다. 백부님은 1920년생으로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제국주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렸다 탈출하였다고 한다. 이후 독립군부대를 찾다가 우여곡절 끝에 중국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대륙에서 일제와 싸우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셨다. 나는 젊은 백부님의 풍찬노숙의 고단하고 처연했을 삶을 생각하니 항상 마음이 먹먹했다. 지금은 현충원에 계신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선친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너희 큰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몇 살인데....” 등과 같이



▲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며(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회한의 말씀을 늘상 하시곤 했었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모든 것을 녹여 삼키고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의 한가운데 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한 명구를 되새기게 된다. 이번 답사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연구소의 기획으로 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북간도에서의 답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용정시 일원이었다. 당시 일본영사관과 일송정 그리고 청산리전투의 격전지였던 어랑촌 일대를 답사하였다. 특히 영사관 지하에는 고문을 자행하던 감옥과 기구들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모진 고문도 겪어낸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니 숙연해졌다. 한편 일송정에서 바라보는 평강평야의 수전농사도 사실은 이 일대로 이주해 온 우리 동포들이 일구었다고 하니 힘없고 나라 잃은 백성의 고초는 가히 짐작도 가지 않았다. 또한 일송정 일대는 ‘비암산 풍경구’라고 관광지로 지정하여 중국 남부에서도 찾아오는 등 많은 인파가 있었으나 일송정에서 바라보는 용정시 일대 만주벌판은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랑촌 일대를 보니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정규군과 싸워야 했던 고초와 조국독립을 향한 열정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다.

다음 답사지로는 서구식 교육의 시초였던 명동학교와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명동촌과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곳 등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생가는 ‘중국 조선족 유명시인 윤동주 생가’로 표기되어 있었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아닌 중국의 지방 정부였던것 처럼 왜곡하듯이 그 맥락을 눈앞에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봉오동전투지역도 상류에 댐이 생겨 접근이 어렵다고 하지만 입구까지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었다. 명동학교는 교육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교육은 어떠한 시대나 상황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조선족자치주는 현재는 조선족보다 한족이 월등히 숫자가 많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중국대륙에서 일본과 싸우신 선조분들의 애환과 노고를 생각하며 이제 연해주 독립운동지로 들어선다. 연해주 지역

주요 답사는 크라스키노의 안중근의사 단지동맹기념비, 홍범도장군 등 한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출발한 라즈돌로예 기차역,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 신한촌, 권업회 건물, 우수리스크 이상설유허비, 최재형 기념관, 하바롭스크 김알렉산드리아 활동지 등이다. 자유시로 이동하여서는 당시 무장해제를 당한 체스노코프, 몰차노보 홍범도 부대 주둔지 등이다. 특히 아무르주에서 설립한 소벡스키마를 자유시참변 추모비에 “이땅에 조선인 파르티잔 잠들다”라는 짧은 문구는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고군분투한 독립운동가들의 애환인 듯 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 최재형선생 고택앞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국경인 흑룡강을 건너 중국의 흑하를 거쳐 하얼빈으로 이동하여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731부대 기념관을 답사하였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근원을 생각 하라(飲水思源)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번영과 세계 10위권의 국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육사시인의 ‘광야’에서처럼 더 이상 초인을 기다리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이번 독립운동 답사 기행과 같이 늘 기억하고 되새기도록 다짐해 본다. 이렇게 뜻깊은 답사를 마련해 주신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또한 함께 참가하셨던 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회원기고

소설 “김가네” 출판 기념회 참석 후기



정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인 김용택(러시아명 : 블라디미르 김) 작가의 소설 “김가네”가 2024년 7월 2일(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소설 “김가네” 멀리 떠나는 고려인의 삶 출판기념회>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처음 소설 “김가네”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는 공지 내용을 보고 김밥가게 이름과 유사하여 소설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었는데 고려인 동포 작가의 작품이라는 부연 설명을 듣고 한 집안의 대하소설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전에 북간도 이주가 본격화된 186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사를 다룬 안수길 작가(1911~1977년)의 소설 “북간도”를 읽으면서 1860년대 대기근으로 인한 조선인의 월경으로 시작하여 조선의 패망으로 생존하기 위해 또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주하였던 당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봤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젊은 시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들이 갑자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로 끌려가서 정착하는 장면으로 끝나,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이 궁금했었다. 안수길 작가가 1930년대까지 만주에서

살고 해방 후 함경북도로 갔다가 전쟁이후 월남한 이력을 보면 1967년 소설 “북간도”를 발표하면서 193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이주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출판회에 참석하여 김용택 작가와 본인의 이력과 소설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빨리 읽고 싶어졌다. 김용택 작가는 1946년생으로 타슈켄트에서 부모 및 형제들과 함께 한국전쟁 이전 북한에 왔다가 전쟁기간 동안은 중국에서 전쟁 후에는 북한에서 1958년까지 있다가 타슈켄트로 돌아온 후 타슈켄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기자가 되었다. 1980년대말 고려인 신문인 고려일보에서 일하자고 하여 합류하였는데 이때까지 조선어와 조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때부터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일제 강점기 시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가 중앙아시아까지 오게 된 고려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1910년 국경을 넘은 김씨 집안을 배경으로 고려인의 삶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소설이 다루는 시대가 1910~2010년에 이르는 100년의 역사로 방대하여 여러 시대로 나누어 소설을 구성하였는데 1부는 나라가 패망한 1910년부터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1930년대말까지 다루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3년에 걸쳐 집필하였다. 이 소설은 러시아어로 집필되었는데 접경인문학 번역사업으로 20년이 지난 2024년 6월에서야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2부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시기부터 해방 시기를 다루고 3부는 해방시기부터 2010년까지 다루는데 2부는 집필이 완성되어 번역을 기다리고 있고 3부는 현재 집필중이다. 작가는 1958년 북한을 떠났다가 1980년대 이후 2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배경이 남/북한 중앙아시아 전체를 삶의 공간으로 살아 온 김씨 집안의 삶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기증한 김가네 1부는 50장 1,000여쪽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을 보다가 소설의 전개가 너무도 궁금하여 열흘만에 읽게 되었다. 소설은 1910년 김철(고종 황제의 호위대장)과 첫째 아들 김강철(조선군 중대장), 둘째 아들 김동철(한성고등보통학교 학생)이 각각 다른 인생 경로를 갖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김철은 황제를 북간도로 탈출시키려다가 고종의 거부로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김강철은 조선군이 해산된 후 일본과 맞서기 위해 북간도로 이주하여 일본군과 싸우다 연해주로 이주하고 러시아군 장교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연해주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1937년 일본군 첩자로 사형되고 1950년대말 복권된다. 소설 1부는 김강철이 주인공으로 국내 탈출부터 죽을 때까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소설 1부의 에필로그에서 김강철 외에 김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전달한다. 둘째 아들 김동철은 조선말 일본의 국비 유학으로 일본에 가서 2명의 아이를 낳고 1명은 미국에 1명은 한반도에 있음을 밝힌다. 김강철의 첫째 아들 김철수는 국경을 넘어 중국을 거쳐 연해주로 넘어갈 때 중국인 마을에서 잃어버리는데, 한국전쟁 기간 중국군으로 파병을 나가는 것으로 언급된다. 둘째 아들 김민철은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의 지배인이 되고, 셋째 아들 김 알렉세이는 사마르칸트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고 1944년 자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다시 북조선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우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한다. 1부에서는 1937년 김강철이 일본의 첩자로 몰려 사형당하는 시점까지 다루고 있지만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김강철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작가가 2010년까지 김씨 집안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여 고려인의 삶이 근대 역사와 밀접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로 봤을 때 언급된 다음 후손들의 삶이 2부, 3부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부는 일찍이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보는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의 모습이 어떤지 자못 궁금하고 2010년까지 다루는 3부는 오랜 남북의 분단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환경에서 1980년대 이후 비교적 남북의 변화과정을 더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할 수 있었던 작가의 시각이 궁금하다. 이미 완성된 2부의 번역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현재 집필중인 3부의 내용이 완성되면 단순한 해외 이주 역사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동포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의 현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작가는 40대 이후 조선어와 조선 역사를 공부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부 조선의 역사 년도(번역에서 원작 그대로 표기하였음을 밝힘)와 조선 왕궁의 묘사(왕궁의 성벽이 운하와 직접 접하는 장면 등) 등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조선 사회 환경의 묘사가 매우 자세하고 당시 조선인 및 일본인 등 등장 인물의 묘사가 자연스러운 것이 매우 놀랍다. 또한 러시아로 이주하여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러시아인 및 러시아 문화 그리고 당시 러시아 사회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작가가 러시아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소설 내내 주인공이 평등한 사회이면서 개인의 자유 필요성을 견지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사회를 경험한 작가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 김용택 소설 “김가네” 작가

2023년 사업보고

I. 주요사업 목표

1.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2주년 기념 및 순국 80주기를 추모하며,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기림
2. 독립전쟁의 의미와 역사성을 기념하는 독립전쟁 선양사업으로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을 개최, 독립전쟁의 대표적 인물인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고취 시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
3.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서 고려인 문화·역사 교육사업을 통해 고려인 사회와의 교류 및 정체성 유지·발전과 카자흐스탄과의 민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에 기여

II. 세부사업 내용

1. 국내 고려인 학생자녀 역사 교육·탐사

- 가. 목적: 장군 유해봉환 이후 후속 사업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아직 접하지 못한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 자녀들을 모집하여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한국어 공부에 동기 부여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1차) 2023년 4월 15일(토)
(2차) 2023년 11월 11일(토)
- 장소: 우당이회영기념관, 서울타워, 경복궁, 인사동 등
- 사업내용: 1차, 2차 각각 30명 고려인 학생과 4~5명 한국 대학생이 함께 서울 역사 유적지 탐방
- 대한고려인협회, 인천대학교 국제통상학부와 협업

2-1. 역사탐방(독도)

- 가. 목적: 홍범도 장군의 항일애국정신을 기리고 일본의 헛된 주장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견고히 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독도 강연) 2023년 5월 30일(화)
(독도 탐방) 2023년 6월 2일(금)~4일(일)
- 장소: (독도 강연) 국회
(독도 탐방) 울릉도, 독도
- 사업내용: 호사가 유지 세종대 교수의 '역사와 국제법으로 본 독도' 강연을 듣고, 독도의용수비대와 울릉도·독도해양 연구기지 및 독도수비대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의 항일애국정신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외세 침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로 다짐함.

- 다. 참가인원: 독도 강연(회원 및 독도의용수비대 임원 등 50여명 참여) 울릉도·독도 탐방(회원 등 30명 참여)

2-2. 역사탐방(춘천 의병마을)

- 가. 목적: 조선 말기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의암 류인석기념관과 을미의병부터 정미의 병까지 직간접적으로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윤희순 의사의 묘역을 탐방하여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의 구국 정신을 기리며, 홍범도 장군의 의병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6월 10일(토)~11일(일)
- 장소: 강원도 춘천

- 사업내용: 류인석 기념관의 학예사를 통해 류인석 선생의 의병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음. 윤희순 의사의 묘역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직접 방문하지 못함.

다. 참가인원: 회원 30명 참여

※ 블라디보스토크 탐방: 연초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독도 탐방으로 변경

※ 홍범도함 방문: 육사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 논란 문제로 취소

3.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행사(기념식)

- 가. 목적: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을 기념하며 홍범도 장군의 무장 독립항쟁의 정신을 기림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6월 7일(수)
 - 장소: 국회
 - 사업내용: 회원 및 보훈 관련 기관을 초청하여 기념식 진행
- 다. 시행방법: 회원 및 홍범도함 승조원 등 관련 단체에서 50여명 참여하여 봉오동전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전통 무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통해 국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의 행사 진행

4.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

- 가. 목적: 산포수 출신으로서 총으로 의병활동 및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한 홍범도장군의 애국정신과 리더십을 차세대 사격인들과 국민들에게 선양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6월 8일(목)~11일(일)
 - 장소: 춘천공공사격장
- 다. 시행방법: 2023년 상반기 대회 우수자 초청 대회, 선수 364명 외 관계자 1,000여명 참가(우수선수 포상금 지원에 따른 이벤트 사격대회로 기록은 공인되지 않음)

5. 고려극장 한국 초청 순회 공연

- 가. 목적: 유해봉환 2주기 및 고려극장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강제이주 이후에도 한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말로 공연을 해 왔으며, 홍범도 장군이 수위로 일하면서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고려극장의 감독과 배우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홍범도 장군 관련 연극 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의 홍범도 장군과 강제이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8월 16일(수), 18일(금)
- 장소: 서울 국회, 대전 서구문화원
- 사업내용: '40일간의 기적 - 홍범도 장군의 기억 속으로' 제목의 연극을 통해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후 언 땅을 맨손으로 파내며 살아낸 고려인들을 홍범도 장군의 시선을 통해 그려냄.

다. 시행방법: 고려극장 단원 25명 공연

서울 관람객 600여명, 대전 관람객 300여명

6. 고려극장 전시회

- 가. 목적: 일제강점기 정작 모국에서는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역에서 모국어로 연극을 공연하고 한글로 신문을 발행하여 강제이주된 한민족의 구심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유대를 강하게 만들어온 고려극장의 설립 90주년과 고려일보의 창간 100주년 기념 전시를 통해, 국내 및 CIS 지역 동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동포와 모국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홍범도 장군의 염원이었던 독립정신과 민족애가 지속 발전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12월 20일(수)~25일(월)
- 장소: 서울 인사동 갤러리 '구구'
- 사업내용: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로부터 사진자료 후원받아 전시함.

다. 관람객 500여명

7.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및 순국 80주기 추모 행사(기념식 및 추모식)

- 가. 목적: 순국 8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식과 추모부스 운영을 통하여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림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10월 23일(월)~29일(일)
- 장소: (추모식)국립대전현충원
(추모부스)서울(노원/서대문), 대전, 광주, 대구, 춘천, 알마티

다. 참여인원: 추모식 50여명 참여, 추모부스 총 3,000여명 참여

8. 학술회의

- 가. 목적: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기존 연구가 미진한 부분을

발굴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독립역사 연구 심화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12월 15일(금)
- 장 소: 국회
- 사업내용: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3)”
 - 고려극장 극작가 태장춘과 연극 “의병들”
 - 항일혁명가 이인섭과 “홍범도장군 분묘수리위원회”
 -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주장의 왜곡과 오류
 -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저지 운동 경험담

다. 시행방법: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 초청하여 논문 발표 및 토론

9. 고려인 문화 교육·전수 사업

가. 목적: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에게 한국 문화의 교육을 함으로써 고려인의 한국 이해를 돕고 한국과 고려인 교류에 도움이 됨.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2023년 10월 25일(수)~12월 31일(일) 총 8주
- 장 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 사업내용: 송파다리밟기와 송파산대놀이 전수자를 파견하여 우즈베키스탄 고려가무단 단원 17명을 교육함

10. 소식지 발행

가. 목적: 기념사업회 활동 소식과 홍범도 장군 관련 교육적 자료를 발행, 배포하여 회원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에 기여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봄호(34호), 여름호(35호, 봉오동전투 전승 103주년 특별호), 가을호(36호, 홍범도장군 홍상 철거 백지화 특별호), 겨울호(37호,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특별호)
- 다. 시행방법: 매 소식지 600부 발행하여 회원 및 관련 단체에 우편 발송

11. 홈페이지 및 SNS 개편

가. 목적: 홈페이지와 SNS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이후 상황에 맞춰 개편하고, 기념사업회 소식 공지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홈페이지(23년 5월~24년 1월), SNS(23년 2~3월)

다. 사무국 직접 관리로 최신 소식 유지 및 시민과 소통 강화

12.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저지 운동

가. 8월 25일: 육사 내 독립영웅 홍상 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국회)

나. 9월 1일: 독립영웅 홍상 철거/이전 규탄 대회(육사 앞)

다. 9월 10일: 대전 걷기대회

라. 9월 17일: 서울 걷기대회

마. 9월 24일: 노원 걷기대회

바. 타 도시 걷기대회(광주, 진해, 홍성 등)

사. 1인 시위(육사 앞, 광화문 앞, 국방부 앞, 알마티)

13. 기타

(1) 대전지역모임 출범: CMS 회원 300명 중 대전 회원 100명

(2) 크즐오르다대학교: 서울과기대와 협업하여 현재 4개 학과 운영 중



2023년 사업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사업계획

I. 주요사업 목표

- 1.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리고 선양한다.
- 2. 우리나라 항일 무장독립전쟁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린다.
- 3. CIS 및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와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협력하고, 카자흐스탄 민간 외교에 기여한다.

II.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시기	장소	내용
설 성묘	2/11	대전현충원	
전시회	3/1~5/19	식민지역사 박물관	- 전시회명: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 - 홍범도 장군의 전 생애를 돌아보는 전시회
봉오동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6/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기념사업회 회원 및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홍범도함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념식 거행 - 5주기 사이 행사는 내부행사로 진행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6/5~6/11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나주 소재)	- 국가대표 선발 및 대한사격연맹 공인대회 승격 - 사격 전종목(14개 종목) 실시 - 선수 연인원 2,646명 참가 - 25년 장애인부 및 일반부 신설 예정
유해봉환 3주기 기념식	8/18	대전현충원	- 내부행사
추석 성묘	9/17	대전현충원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및 순국 81주기 추모식	10/25	대전현충원	- 기념사업회 회원 및 관련 정부기관, 시민단체, 홍범도함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념식 거행 - 5주기 사이 행사는 내부행사로 진행 - 전시회 추진 - 관련 단체와 공동 주최 협의

사업명	시기	장소	내용
국내 고려인 (청소년 포함) 역사캠프	10/11~10/13	대전 효문화마을	- 대전 중구청 효문화뿌리축제 부속행사로써 국내 거주 고려인 60명과 청소년 30명 초청하여 역사캠프 실시 - 주최: 중구청 - 주관: 중구청, 대한고려인협회 - 후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함 위문 방문	10~11월 중	창원시 진해구	
학술회의	11/15	국회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4) - 구춘선, 서일, 김좌진
소식지(계간) 발행	봄/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 600부 발행하여 회원 및 관련 단체에 우편 발송
스트릿댄스컬 대본 수정			- 작품명: 조선 호랑이 - 브레이킹댄스로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생애 공연 계획 - 기존 작품의 대본 수정 작업 - 수정된 대본을 바탕으로 스트릿댄스컬 제작
마라톤대회(대전)		대전	- 대전지역모임에서 사업 기획 중
날은홍범도가 음원제작(대전)			- 날은홍범도가를 현대 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락 버전 음원 제작 - 대전지역모임에서 사업 기획 중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설 성묘



2월 11일, 오광영 이사와 대전지역모임 회원들, 그리고 한동건 사무총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님께 성묘 드렸다. 바로 옆 최진동 장군 묘소에도 성묘 드렸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2024년 정기총회



5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원식 이사장 주재로 2024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기총회에서 2023년 사업결과와 2024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고, 특히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우리 기념사업회와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의 우애를 다지고 향후 고려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사업에 계속해서 함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신임 부이사장 선출



황원섭 부이사장의 사임 이후, 4월 26일 이사회에서 신임 부이사장으로 부윤경 이사가 추천되어, 정기총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선출되었다. 부윤경 이사는 선출된 자리에서 황원섭 부이사장의 뒤를 이어 기념사업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4

감사패 수여



정기총회에서 항상 기념사업회 사업과 행사에서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모임' 회원과 함께 봉사 활동을 활발히 이어 오는 홍이표, 이행란 이사 부부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5

신임 이사 선임장 수여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에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이사>

강철(한경국립대학교 컴퓨터응용수학부 교수), 김광중(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병욱(전 국회의원), 김선엽(오산대학교 보컬K-POP컨텐츠학과 겸임교수), 김영진(국회의원), 노송달(전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민형배(국회의원), 박주민(국회의원), 박화양(베이스캠프 대표), 서진웅(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오승록(노원구청장), 윤후덕(국회의원), 이용빈(전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정상도(문화시대기획 대표), 정성호(국회의원), 정영순(대한고려인협회 회장), 정재홍(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상호(변호사)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우원식 이사장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출 후, 6월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였다.



문현군 이사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7월 12일 대전에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천안에서 택배산업본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명우 이사

전 평남지사를 역임한 우리 기업사협회 이명우 이사가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문학저널> 2024년 봄호의 추천을 받아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이명우 이사의 등단 작품인 <자경이 꽃>은 대학시절 이대생들과 함께한 워크캠프에서 만났던 한 여학생과의 가슴 설레임과 이별의 아픔을 과거를 회상하면 쓴 단편소설 같은 수필이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씩은 겪었을 첫사랑의 아름답고 설레었던 추억을 일깨워주는 수작이라는 추천 작가의 평가이다.



홍성중 이사

고려말기 판삼사(조선품계 영의정)를 지내신 장간공(휘홍용)의 향토문화재등록과 조선초 학자이신 우국제공(휘홍경손)의 문집과 조선중기 이조판서를 지내신 북정공(휘홍처량)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고 출간 작업을 하고 있다.